

# 출생부터 육아·주거까지... 촘촘한 지원으로 저출생 대응

서울시, 저출생 극복에 1.8조 투입  
둘째 출산시 첫째 돌봄지원 시작  
맞벌이 위한 '아침 돌봄센터' 운영  
서울키즈 오케이존 700개소 확충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부터 돌봄, 주거지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담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엄마야행복 프로젝트'의 확장판으로 국비·구비 포함 총 1조7775억원이 투입된다. 전년도 관련 예산(1조5002억원)보다 2773억원 늘어난다.

우선 시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 소중한 생명 탄생을 준비하는 임신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아동당 200만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으로 인상해 다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 부모급여도 기존 월 70만원(0살), 35만원(1살)에서 월 100만원, 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새해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들에게는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 서울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b>예비양육자 지원</b>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공공시설 활용 결혼식	<b>임산부 지원</b> 임산부 교통비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b>돌봄·주거인프라</b>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모아어린이집 등 보육 질 제고 신혼·양육친화 주거 지원	<b>예비양육자 지원</b>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확산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



자료/서울시

지원한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올해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다태아) 양육 가정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와 함께 시는 양육자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에 나선다.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등원·병원동행 돌봄 서비스'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맞벌이 부모의 출퇴근으로 이른 아침 틈새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위해 권역별 거점에 아이를 맡기고 가면 돌봄과 등하교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를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점자별레, 보라매공원 등에 새롭게 문을 열어 연말까

지 130개소로 확대한다. '퇴근길 가정 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사업은 이용할 수 있는 업체 수를 3개에서 7개로 늘린다.

'서울키즈(Kids) 오케이존'은 연내 700개소까지 확충한다.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해 참여업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아이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올 하반기 누구나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전담 어린이집' 도입을 추진하고, 24시간 연중 이용 가능한 '365열린어린이집'과 토·일요일에 갈 수 있는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을 올해 각 17개소, 2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교육부, 다문화·탈북학생 안정적 성장 지원

멘토링 사업예산 등 규모 확대  
대학생 멘토 근로장학금 인상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다문화 학생과 탈북학생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4만6954명에서 2018년 12만2212명, 작년 18만117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본 사업은 대학(원)생이 다문화·탈북 학생의 멘토가 돼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멘토들은 근로장학금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올해 사업 예산을 156억원

으로, 멘토링 활동 가능 시간을 104만 시간으로 늘린다. 또 대학(원)생들이 멘토링 활동을 통해 학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학금도 인상한다. 도시의 경우 시간당 장학금이 기존 1만25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농·어촌은 종전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024학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의 멘토·멘티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이주배경에 상관 없이 자기 잠재력을 키워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폐업 걱정 뚫... 소상공인 생계지원 돕는다

서울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가입 지원대상 기준 3억 이하로 확대

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가입 지원대상 기준을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월 5만~100만원)에 연 복리이자율을 적용해 일시에 지급하는 공적 제도다.

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

기 위해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올해 시는 수혜 대상을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늘린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역본부·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www.8899.or.kr](http://www.8899.or.kr)) 또는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서울시가 지원하는 '희망장려금'도 동시에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소상공인이 폐업하게 되면 직업훈련 비용, 실업급여 등 재취업·창업에 도와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100%(서울시 20%, 정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선해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자영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헤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경기 침체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인베스트서울, 외국인투자 150억달러 유치

금융·보험업, 신규 투자 역대 최대치  
중동지역 중심 네트워크 구축·확장

서울시는 투자유치 전담기구 '인베스트서울'이 지난해 약 150억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작년 인베스트서울의 FDI 금액은 147억달러로, 출범 당시인 2022년 107억3000만달러 대비 37% 증가했다. 특히 금융·보험업(86억5000만달러)과 신규 투자(56억달러)에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잠재력을 가진 매력적인 글로벌 투자처로서 서울이 주목받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유럽 출장에서 덴마크 코펜하겐을 찾아 풍력 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베스타스사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 이전을 위

한 상호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해 베스타스사의 아태 지역본부를 서울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인베스트서울은 창업 생태계에 관심이 많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확장에 나섰다. 작년 10월 아부다비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인 Hub71(허브71),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금융허브인 DIFC(두바이국제금융센터) 등 주요 기관과 연이어서 MOU를 맺으며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 협력을 강화했다.

올해 인베스트서울은 창조산업 등 서울시가 육성하는 유망 기업에 대한 해외 자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와 북미지역 테크 유니콘을 서울로 유치하는 데에도 공을 들일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 성남시,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에 92억 투입

급식도우미, 환경정비 등 7개 분야  
시급 1만1960원 적용, 봉사료 책정

성남시는 올해 말까지 92억원을 투입해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을 편다. 65세 이상 성남시민 4600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다.

어르신 소일거리는 7개 분야에서 추

진된다. 분야별 참여인원은 경로당 안전지킴이 390명, 경로당 급식도우미 450명, 환경정비 3140명, 클린공원 지킴이 300명, 환경감시단 190명, 복지도우미 100명, 실버 금융구역 지킴이 30명이다.

이중 경로당 안전지킴이·급식도우미 2개 분야(840명)는 지난해 말 모집

절차를 마치고 지난 1월 2일 먼저 사업을 시작했다.

환경정비 등 다른 5개 분야(3760명)의 소일거리는 오는 2월 16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

오는 3월 3일부터 연말까지 하루 2시간씩, 한 달에 12시간 소일거리를 하고, 월 봉사료 14만3520원을 받는 조건이다. 올해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만1960원을 적용해 봉사료를 책정했다.

/성남(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해무 / 07:31 | 해질 / 18:02

2월 7일 (수)  
음력 : 12월 28일

수도권 날씨  
-2 ~ 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5/4, 동두천 -4/4, 가평 -4/5, 파주 -6/4, 서울 -2/4, 양평 -2/4, 인천 -4/2, 수원 -2/4, 용인 -2/4, 평택 -3/4, 백령도 -2/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美, 북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관련 "면밀 주시...동맹 협의 지속" /사진 뉴시스  
▲美 대법원, 8일 트럼프 후보 자격 심리...중대 전기

▲日정부, 해상풍력발전소 설치구역 영해→EEZ로 확대  
▲中해경, 남중국해 분쟁수역서 필리핀 해안경비선 퇴각



▲사우디, 3월 아시아 인도분 원유가 예상밖 동결  
▲이스라엘 국방 "하마스 지도부 신와르 도망치려 지휘 못 해" /사진 뉴시스